

2025년 여름

제 119호 2025년 6월 2일
서울대 기독교교회 소식지

진리는 나의 빛

창간 1994년

† 올해의 말씀 †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시 119:9)

발행인 · 임현우 / 편집인 · 권순희 최하영 / 학생기자 · 장동원 조진호 / 발행처 · 서울시 관악구 서림7길 대학춘교회 / TEL · 888-9111 FAX 888-9112

간사칼럼

청춘의 부활을 노래하라!

까맣고 앙상한 나뭇가지가
매섭게 부는 찬바람에 꺾여 버릴 듯이 흔들렸습니다.
무겁게 쌓인 눈에 어깨가 더욱 처졌습니다.
이러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가지가 잘 버텨 주었습니다.
이 연약한 가지가 어떻게 그 추운 겨울을 이겨냈을까요?
보이지 않는 신비의 손길을 느낍니다.

따스한 햇볕이 내리고 향긋한 봄바람이 불니다.
가지는 바람결에 잠을 깨 눈을 부비며
연두색 기지개를 켭니다.
순식간에 화사한 꽃을 피우고 싱싱한 잎을 냅니다.

누가 이토록 아름다운 생명을 창조한 것입니까?
내 마음은 아직도 녹지 않은 차디찬 겨울인데,
이렇게 혼자서만 앞서가는 자연의 봄이라니!
캠퍼스 한 모퉁이에서 쓰러린 가슴을 쥐어짜며
시샘 가득한 눈으로 슬픔의 눈물을 흘립니다.

눈부시게 찬란한 봄에 이리도 추운 영혼의 밤이라니!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은
걷는 길을 빙판이 되게 하였습니다.
강하게 불어오는 바람에 휘청거리다가
그만 미끄러져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몸을 일으켜 보려고 했으나,
몇 번이고 다시 미끄러져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눈에는 고드름이 생기고,
온 몸이 빙판 위에 얼어붙어 그렇게 꺼져갔습니다.

저 멀리서 부드럽게 다가와 걸옷을 벗어 덮어주시고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시며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따뜻한 눈물이 동상에 걸린 제 발을 녹였습니다.
손수 차린 따뜻한 밥상으로 먹여 주시며,
외롭던 저의 말벗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죽어가던 제 영혼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둠던 세상이 밝아왔습니다.
그분의 미소는 제 삶의 희망이었고,
그분의 말씀은 길과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제게서 빼앗아 갔습니다.
주먹질을 하고 발로 차더니
나무에 매달아 두 손과 발에 못을 박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며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며 얼마나 몸서리쳤는지 모릅니다.
그날부터 3일을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삶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3일 후 이른 아침 저는
그분의 시신이라도 보고자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시신이 없었습니다.
온 산속을 헤매며 그분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무리 그 이름을 불러도,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풀밭에 털썩 주저앉아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그분이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환상인가, 아니면 유령인가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뻐서 그 손과 발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신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은 변함없는 미소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분의 숨결이 제 가슴에 닿자

비로소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이 녹고
기쁨과 평화의 샘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순간 그분이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분이 제 대신 죽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정말로 살아나 제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서 봄나물로 식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생선 하나를 드렸더니 뼈를 잘 발라서 드시고
흡족한 미소로 배를 두드리시는데 영광없는 그분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저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이렇게 다시 살아나셨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이분이 저의 죄값을 다 치르셨음을 믿었습니다.
눈물로 저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때 사냥꾼의 올무에서 풀려난 새처럼,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아주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새 생명, 영생입니다.
이것을 주려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것이고,
이렇게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그분이 죽었을 때, 과거의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롬 6:4, 8; 엡 2:5).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신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믿을 때,
봄바람처럼 불어오는 성령께서
그 영혼에 기적이 꽃피게 합니다(골2:12).

비로소 겨우내 얼어붙어 있던 내 마음도
초록으로 물들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흐드러지게 핀 벚꽃과 만발한 개나리, 진달래와 함께
눈부시게 아름다운 부활의 봄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슬픔과 우울함이 사라지고
깊이 파였던 마음의 상처와 질병도 다 나았습니다.
영혼의 호흡마다 봄 향기가 가득하고
기쁨과 평화와 감사의 꽃이 활짝 필니다.
죽음은 가고 싱그러운 생명이 약동합니다.

세상의 저주와 육체의 죽음은 지금도 계속 됩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
내 육체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분이 살아나셨음을
세상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틈만 나면 이 분을 전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전과 똑같은 수는 없습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방에서 도끼가 내리쳐도
그분이 부활했다는 내 외침은
사방에서 내리치는 도끼날을 녹이며
생명의 빛을 네 갈래로 뿜어 십자가를 그려냅니다.

내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영원토록 빛나는 천국 상급이 쌓여갑니다.
그분이 살아났습니다. 저도 살아났습니다.
내 영혼에 부활의 꽃이 피었습니다!

변상봉(UBF 간사)

* 변상봉의 저서 『성경을 품은 기도, 주기도문』(지우, 2024)에서 발췌

종강예배

서울대기독교인연합 연합 사경회가 6월 2일 월요일 18시 30분에 26동 B101호에서 열린다. 이번 개강예배 말씀은 김단일 목사(컴앤씨 교회)가 담당한다. 주제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며 본문 말씀은 ?이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단과대별 식사 교제가 예정되어 있다.



주요 기사 안내

- 1면 간사칼럼 ... 변상봉
- 2면 서기연 대표 취임사 ... 김하영
본 회퍼: 목사. 스파이. 암살자 ... 장동원
- 3면 찬양 특집 ... 강은재/김하경
- 4면 비전스쿨 ... 서재현/황보세린
- 5면 새한글성경 ... 대한성서공회
- 6면 참용기연 설립 소식 ... 김요엘
서울대학교교회 소식 ... 왕량량
- 7면 개강예배 후기 ... 김효은/모영화/민소연/임은현
- 8면 개강예배/신앙오티 사진
대학춘선교회 토크콘서트

서기연 대표 취임사



살롱! 25년도 서울대 기독교인 연합 대표를 맡고 있는 김하영(자유전공학부 20학번)입니다.

부모님 세대의 뜨거웠던 부흥을 듣고 자란 저는, 그때와는 달라져 버린 현실 속에서 우리 청년 세대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던 어느 가을날, 노을이 지기 시작한 하늘이 너무나 아름다워 옥상에 올라가 찬란하게 물들어 가는 구름을 보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렸습니다. 잠잠히 주님의 크심을 묵상하던 중, 한국 기독교의 부흥 시대가 뜨거웠던 한낮이었다면, 이제 완전한 밤이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세상을 물들일 노을 같은 세대가 우리 청년들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비록 뜨겁지는 않더라도, 이 세대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땅끝에서부터 여러 민족이 서울대로 흘러들어오는 요즘, 한국인으로, 서울대 학생으로, 크리스천으로서 가져야 할 사명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졸업 후 앞두고 대학 생활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고민하던 저를, 그동안 받았던 사랑을 고스란히 캠퍼스에 흘려보내고 갈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서는 대표의 자리로 부르시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중 일부,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를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새내기 시절, 저의 기도의 대상은 몇 안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가고, 제자를 양육하며 저의 기도의 대상은 점차 넓어졌습니다. 캠퍼스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에는 채워지지 않던 공허함이,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부짖어 기도하자 비로소 온전해짐을 느꼈습니다. 늘 짐을 잔뜩 어깨에 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앞으로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지 계획을 세우며 마음의 안정을 얻던 저는 이제는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저의 인생 가운데 함께 걸어가시며 어둠을 몰아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늘 함께하시기 때문에 먼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마음이 아픈 이들을 보면,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기뻐하시며 여여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나누고 싶어집니다.

넘어지고 좌절하더라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더 많은 청년들이 알게 되길 간절히 구합니다. 캠퍼스는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집입니다.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품어 준 귀한 보금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캠퍼스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면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이미 놓쳐 버린 이들을 떠올리면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임기를 시작하며 가진 첫 마음은 “캠퍼스에서 받은 사랑 이상으로 사랑을 주고 가고 싶다”였습니다.

그러나 서기연을 섬겨 주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다니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이들이 이 캠퍼스를 사랑으로 섬기고 있으며, 넘치도록 기도를 부어주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시편 8:4)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나라는 존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감히 가늠할 수 없었기에 그 사랑의 한 귀퉁이라도 알고 싶었지만, 마주해 보니 그것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뜨거

운 사랑이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이기에, 요즘은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마음과 말씀의 능력으로 대표의 자리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서기연에는 예수님을 닮은 이들이 많습니다.

지체들을 보며 예수님의 한 조각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사람은 비록 예수님이 될 수 없지만, 그분을 닮기 위해 평생토록 노력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자들이 모인 곳 중 하나가 서기연입니다. 사람의 부족함을 판단하고 죄를 심판하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서기연은 그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손잡아 주기 위해 힘쓰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로 설 때, 서울대 학생들이 보기에 감동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만이 캠퍼스에 보여 줄 수 있는 감동일 것입니다.

늘 든든한 동역자들을 보내 주시고, 함께 캠퍼스를 위한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나날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저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영혼에게 저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울고 계시는 어두운 땅에 저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서울대 기독교인연합 여러분! 제가 캠퍼스를 향한 여호와와 마음을 알아, 저의 모든 뜻이 여호와와 뜻과 일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서기연 안에서 온전히 사랑받고 사랑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영(자유전공 20)

본회퍼: 목사.스파이.암살자



Bonhoeffer, 1906-1945)에 대한 전기 영화이다. 그가 독일 나치당에 대항해 하나님의 공의를 찾고자 투쟁한 이였다는 것까지는 많이 알지만, 그의 다른 면모까지 알고 있는 이는 많이 없다. 이 영화는 그의 다양한 면모를 조명하여 전체적으로 그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서도 많은 생각할 거리를 남겨주었다. 필자의 생각이 머물렀던 몇몇 장면들에 대해 같이 나누고자 한다.

#1

촉망받는 독일 출신 신학도 본회퍼는 미국 유니언 신학교로 유학한다. 이곳에서 만난 흑인 친구와 뉴욕 할렘 지역에 있는 아비시니아 교회에 출석한다. 할렘은 우리에게 힙합 등 흑인 문화의 중심지로 알려진 곳으로, 당대에도 흑인들의 밀집 거주 지역이었다. 비교적 부유한 흑인들의 거주 지역이었던 할렘에서 본회퍼는 모든 흑인이 큰 문제 없이 사는 줄 안다. 이에 흑인 목사는 그에게 흑인 친구와 그나마 안전한 워싱턴 D.C.로 여행해볼 것을 권한다.

워싱턴 D.C., 지금의 우리는 여러 상징적인 시위와 기념물들이 있는 그곳을 세계 자유와 평등의 수도라고 생각하지만, 1930년대의 그곳은 정반대의 장소였다. 당대 미국은 아직 K.K.K단이 활발하였고, 국가적 차원에서 흑인에 대한 차별과 공격이 이뤄지던 나라였다. 할렘 지역이 그나마 흑인들이 자유를 구가할 수 있는 곳이었고, 다른 지역에서는 공공연히 차별과 공격이 이뤄졌다. 심지어

수도인 그곳에서도.

본회퍼와 일행은 일행 중에 흑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관에서 쫓겨나고, 구타당하고, 총으로 위협받는다. 본회퍼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한 흑인 차별이라는 현상 때문만이 아니었다. 자신을 이토록 박대하는 이가 뒤에 십자가를 걸고 있기 때문이었다. 본회퍼는 그 십자가의 믿음에 대해 말한다. 당신도, 나도, 저 흑인 친구도 모두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 그분을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인종차별에 깊이 찌들어 있던 여관 주인에게 돌아온 답은, 그가 미쳤냐는 폭언과 총을 쏘겠다는 위협뿐이었다. 그와 같은 사랑의 행변을 우리는 할 용기가 있는가? 적어도 들을 귀가 있는가?

#2

독일로 돌아온 본회퍼가 마주한 독일의 현실은 미국에서 보았던 것보다 나을 게 없었다. 독일은 나치당이 독재함에 따라 교회도 그들에 영향하고 있었다. 교회에서 히틀러를 찬양하는 설교가 이루어졌다. 하나님만이 높여져야 할 하나님의 전에서, 한 정치인을 하나님과 같은 구세주로 높인다. 이런 교회의 타락은 나치 정권 내내 지속된다. 나치 정권에 교회는 오히려 부역하여, 성경의 내용에 손을 대고 거짓된 신학을 발명한다.

본회퍼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그리스도 외의 구원자를 말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이는 모욕이라고 선배 목회자에게 항의한다. 선배는 모든 게 자리 잡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 순응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어서 며칠 뒤 큰 교회에서 설교를 맡게 될 예정이었던 본회퍼에게 선배는 세익스피어의 문장을 인용하여 젊은 만용을 억누를 것을 권고한다. 이에 본회퍼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유대인 작가의 말을 인용하겠다고 답한다. 그 유대인 작가는 신약의 많은 부분의 저자인, 바울이었다.

필자에게 이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다. 세상의 잘못된 기조에 물들어가거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교회 가운데서, 오직 성경의 말씀으로 답한다니. 가장 기본에 충실하고, 순전한 답이다. 그리고 세상의 좋은 말들로 하

는 권계 다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좋은 권계가 있을까? 세상의 흐름으로, 세상의 좋음 앞에 우리의 믿음은 건 강한가? 어떤 세상, 어떤 말과 글 앞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3

필자는 이 영화를 두 번 보았다. 첫 번째는 기사를 쓰기 위한 의무감에 극장에서 보고 온 것이었고, 두 번째는 21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기내영화로 다시 보았다. 두 번째 이 영화를 봤던 것은 내 일이 아닌, 내 마음이 불렀기 때문이었다.

지금 대만에 가면 거리에서 교단, 교회의 이름이 적힌 조끼를 입은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복음을 전하는 건가 하고 반가워서 다가가면 아니다. 지금 대만은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인 국회의원을 쫓아내자는 “대파면(大罷免)” 정국이다. 주민의 10%가 서명하면, 지역구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투표가 진행된다. 이 주민 서명을 교단, 교회 조끼 입은 사람들이 받는다. 믿음, 사랑, 소망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조끼를 적은 이들이 서로를 쫓아내자는 데에 열심이다. 영화에서 본 교회의 모습이다. 하나님 아래 우리는 하나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세상에 버무려 세상을 높인다. 본회퍼의 외침이 다시 들리고 싶었다.

영화가 끝나고, 인천공항에 내려보니 큰 화면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다시 마주한 우리의 모습, 특히 지난 겨울의 모습은 대만, 독일, 미국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곳이었다. 더하다면 더한 곳 아니었던가. 나는 골방에 틀어 앉아 영화를 세 번째 보며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보단, 이 글을 쓰기로 했다. 같이 생각하고, 같이 하나님의 “영화” 보기를 기대하는 마음이다.

장동원 학생기자(중어중문 석사과정)

찬양특집

내 삶의 목적이 찬양이 되기까지



1. 단순한 노래에서 나의 고백으로
어릴 적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은 단순한 “노래” 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한 저는 교회 생활을 통해 자연스레 찬양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유년 시절의 저는 예배 시간보다 찬양 시간이 더 기다려졌습니다. 예배 때 부르는 찬양은 친구들과 함께 부르며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처럼 느껴졌고, 가사의 의미보다는 멜로디와 리듬에 더 집중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니?” 라고 여쭙보실 때도 고민하지 않고 “노래 부를 때 가장 행복해요!” 라고 대답할 만큼, 노래는 제게 기쁨이자 놀이의 연장

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등부 겨울 수련회에서 찬양 인도를 맡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와 다를없이 친구들과 함께 찬양을 연습하고, 늦게까지 교회에서 수련회를 준비한다는 것이 그저 재미로 다가온 시간 가운데, 문득 한 찬양의 가사가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 어노인팅 9집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중

처음엔 그저 연습을 위해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곡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나의 영원한 소원은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일까?’



이전까지는 찬양을 부를 때, ‘이 노래는 고음이 어느 정도 되나’, ‘내가 이 곡을 어떻게 표현해야 멋있을까’ 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련회 찬양인도를 준비하는 동안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묵상할 수 있었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벅차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처음으로 찬양의 가

사가 저의 진실한 고백으로 드러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후, 저에게 찬양은 더이상 ‘잘 부르는 것’ 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고백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예배 시간에, 그리고 삶의 다른 순간에도 ‘이 곡이 지금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가’ 를 스스로 묻게 되었습니다.
그 수련회는 제 신앙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찬양은 제 삶 속에서 더 이상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신 목소리를 통해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목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 삶의 목적, 찬양
저는 성악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무대에 서는 것이 기쁨으로 다가왔고, 누군가 제 노래를 듣고 감동하는 그 순간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노래는 저의 정체성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성악이라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들어오고, 전공 속에서 성악은 더 이상 순수한 즐거움만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연습, 끝없는 비교와 경쟁,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ना야 한다’ 는 압박감 속에서, 제 노래는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처음엔 그저 잘하고 싶었고, 이기고 싶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무대 위에서 찬양을 부르면서도 마음 한편에선 ‘내가 오늘 얼마나 완벽하게 부를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찬양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닌 부담이 되었고, 예배가 아닌 연주로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 이런 질문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왜 노래를 할까?”
처음엔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무엇을 위해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제 삶의 노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찬양을 ‘잘’ 부르려 했지만, 하나님은 찬양을 ‘진심으로’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노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더 높은 음을 정확하게 내야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낮은 마음으로 부르길 원하신다는 것을, 이미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셔서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닌, 어떠한 모습이라든가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많은 기도와 눈물을 쏟았습니다.
성악을 전공하면서 저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쫓았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좋은 평가, 화려한 무대. 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순종’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가 사람의 감탄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가 되길 바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단번

에 온 것은 아닙니다. 무대에 매 번 오를 때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흔들립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지만, 찬양 중에 조용히 마음에 이러한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너의 찬양을 기뻐한다”
찬양은 이제 저에게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는지를 고백하는 삶의 외침입니다. 제가 찬양을 부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무대에 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서 행하신 그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 찬양합니다.
찬양은 저를 자유롭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 안에서 제가 누구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오늘도 기뻐 받아주세요.
강은재(성악 전공 석사과정)

찬양의 의미



학창 시절 제게 찬양은 그저 ‘노래로 드리는 예배’ 또는 ‘기독교 음악’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 때는 찬양을 위로의 도구처럼 찾아 들었고, 그 속에서 평안을 얻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찬양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성경과 기도, 예배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고, 대학 진학 후 CCC 공동체를 통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 가슴 깊이 와닿았고, 어릴 적부터 들어온 예수님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의 죄와 그 죄를 이기신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믿어졌을 때, 제 찬양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학기 초, 하루는 캠퍼스 복음화를 꿈꾸는 것이 너무나 힘겹게 다가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척박한 환경과 메마른 사람들을 마주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지쳐버렸던 것입니다. 그토록 꿈꿨던 그리스도의 계절은 너무도 멀게 느껴졌고,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의심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어둔 밤 다 물리쳐내고’라는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찬양의 후반부에는 찬송가 516장의 후렴이 등장합니다.

“어둔 밤 지나고 동트는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둔 밤 불이 모두 꺼진 캠퍼스를 걷던 중, 이 찬양이 흘러나오자마자 견잡을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절망과 어둠이 가득한 이 캠퍼스를 향해 승리의 소식을 듣고 오시는 하나님을 찬양 속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외치던 ‘캠퍼스 복음화’는 단지 나 혼자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품고 계셨던 꿈이었다는 것요. 그 깨달음 이후 찬양을 입박으로 고백하기 시작하자 그 고백은 확신이 되었고, 그 확신으로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제게 그저 위로의 도구였던 찬양은 이제 구원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성취를 꿈꾸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당연한 삶의 표현입니다. 찬양조차 할 수 없었던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깊은 감사의고백이 됩니다.

삶과 기도 속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의 기쁨은 이제 제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며, 구원자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삶이 되었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것은, 끝내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그날까지 제 삶이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하나님의 꿈을 이 땅 위에 드러내는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의 삶도 그 자체로 찬양이 되기를, 그 찬양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오늘도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6)

김하경(성악22)

4 서울대 기독교교회 소식지

비전스쿨 소식

신앙과 학업을 위해 치열하게 분투하는 크리스천들을 위해 개설된 서울대 비전스쿨이 두 번째 열매를 맺었다. 본지에서는 2기 수료생들의 소감을 공유하여 복된 소식을 나누는 동시에, 비전스쿨 수강을 고민하는 학우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3기 비전스쿨 안내

*교육기간: 2025년 9월 첫주 토요일 개강, 강의-토론-나눔-기도 등, 1월 중순 해외 필드트립, 2-3월 그룹 프로젝트, 4월 수료.

*지원자 접수 일정: 2025년 7월 중(정시), 그 전에도 수시접수 가능함.

*자세한 내용은 QR코드, 또는 하기 링크 참조.

<https://www.snuvision.org/main/sub.html?pageCode=22>

입학전형

2025년 입학전형

대상

-기독교 대학생
-선발인원 20명-

입학절차

-서류접수기간 2025.7.1~2025.8.1 (수시접수 가능, 접수기간 8.20일까지 연장)
-지원서 www.snuvision.org에서 다운 가능
-개강 2025.9.6

수업시간 및 장소

2025.9.6~2026.1.10 매주 토요일 10:00~17:00
2026.1.12~2026.1.22 (11월) 해외필드트립
2026.2.7~2026.4.11 팀프로젝트 (월기 모임 있으나 팀별로 과제수행)
강의장: 서울 권역구 권역로 1번지 서울대학교 강의실 (구체적 호수는 추후 공지)

등록금

수강료 무료, 필드트립 항공료 본인 부담



비전스쿨 2기 수강 후기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주님께, 그리고 선교적 커리어를 향한 첫걸음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9월부터 약 8개월간 진행된 서울대 비전스쿨 2기 과정을 수료한 졸업생 서재현입니다. 학부 시절에 이어, 졸업 후에도 『진리는 나의 빛』 지면을 통해 저의 여정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1. 비전스쿨 소개 및 수강 동기

서울대 비전스쿨은 청년들이 신앙과 전문 역량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통합적으로 훈련받고, 비전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비전스쿨 2기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기독교 전문인들의 강연, 워크숍에 필드트립과 자율 팀 프로젝트로 구성되었으며,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신앙과 진로, 일상을 재구성하는 살아 있는 훈련의 장이었습니다.

제가 비전스쿨 지원을 결심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졸업 후 입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사회 초년생으로서 세속적인 가치관에 휘둘리기 쉬운 시점에, 주님과과의 관계를 단단히 붙드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준비라고 느꼈습니다.

또한 졸업 이후에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나누고 성장하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특히 경영 분야에서 활동 중인 기독교인 선배들과의 교류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더욱 구체화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동기 안에서 저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품고 비전스쿨에 입학했습니다.

1)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2)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그 과정 속에서 비전스쿨은 저에게 매우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주었습니다.

2. 비전스쿨이 삶에 준 변화

비전스쿨 기간 동안, 하나님은 저에게 선교에 대한 넘치는 마음을 부어주셨고, 제가 속한

비즈니스 영역 또한 선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선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약속을 바라보며 떠나는 여정입니다.

비즈니스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기업에서는 이를 'vision'이라고 부르지만, 본질은 동일합니다.

둘째, 선교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 기도와 예배로 이겨내는 삶입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이고,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주님이 모든 문제에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에 믿음의 초점을 맞추는 삶입니다.

셋째, 선교는 사람을 만나고, 세우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도 결국 사람을 만나고 키우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삶의 터전이자 생존의 수단이기에,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직장이라는 새로운 선교지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택시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업무 중간중간 지체를 구하며 주님께 의지합니다. 퇴근하는 길에는 하루를 무사히 마친 것에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루 18시간이라는 긴 근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향한 생활의 리듬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비전스쿨을 수료하며, 저는 비즈니스를 통해 선한 임팩트와 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내기때부터 서울대학교를 제 선교지로 여기며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다양한 사역에 헌신했듯이, 졸업 이후에는 비즈니스 분야의 리더로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는 곳을 선교지로 삼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3. 비전스쿨을 추천하며

세상은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 속에서 세속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나아가기 이전 철저한 영적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기 위해, 비전스쿨이라는 귀한 기회를 꼭 붙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비전스쿨을 통해 귀한 가르침을 나눠주신 교수님들, 저보다 먼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 선배님들, 그리고 8개월간 함께 달려온 소중한 동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재현(영어영문 졸업)

비전스쿨 수료후기

서울대 비전스쿨은 서울대기독교수협의회가 운영하는 신앙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대학 입학 얼마 후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대학교 첫 학년의 큰 비중을 차지하던 일정이 끝나며 수료증을 받을 때 몽클한 마음이 몰려왔습니다. 그만큼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비전스쿨 지체들과 인사하며 비전스쿨 초반에 적은 기도 제목을 다시 꺼내 봤습니다. 하나는 '명확한 비전을 얻는 것', 또 하나는 '신앙의 멘토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비전스쿨에 신청할 즈음 제 가장 큰 고민은 진로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 과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늘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스타트업,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그분의 일하심이 제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상력은 언제나 제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 깨달음이,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주님이 그 속에서 저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말씀 같아 위로되었습니다.

신앙의 멘토들

두 번째 응답은 많은 멘토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 대학 시절 만난 멘토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보며, 저도 그런 만남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비전스쿨을 통해 만난 선배들과 교수님들이 그래서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비전트립에서 선배들과 신앙에 대한 여러 고민과 의문, 삶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법 등에 대해 나눴습니다. 함께 신앙에 대해 고민해주고 조언 해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덕분에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신앙을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었고, 이제 이런 고민을 함께할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끝으로

돌아보니 하나님이 두 기도제목 모두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대학의 시작점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막막했던 저에게,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고 살아갈지 고민하게 해 주신 게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받은 은혜를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성장의 기회를 주신 교수님들, 다른 비전스쿨 지체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황보세린(심리24)

다음 세대를 위한 공인역 성경『새한글성경』을 소개합니다

한국교회 연합기관인 대한성서공회는 2024년 12월, 다음 세대를 위한 공인역 성경인 새한글성경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성경은 한국교회 각 교단을 대표하는 성서학자 36명과 국 어학자 3명이 본문을 번역하고 검토하여, 13년 만에 발간된 성경입니다. 새한글성경은 원문의 의미와 구조를 최대한 충 실히 반영하면서도 한국어의 표현과 문법을 세심하게 고려 하여 번역되었습니다. 특히 21세기 다매체 환경에 익숙한 젊 은 세대가 성경을 보다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된 것이 큰 특징입니다.



최근 전자매체를 통한 콘텐츠 접근이 일상화되면서, 젊은이들의 읽기 방식도 인쇄물 중심의 선형적 읽기에서 스크린 기반의 비선형적 읽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자매체를 통한 읽기는 하이퍼텍스트와 링크를 통해 진행되며, 이미지·영상·오디오 등 다양한 감각을 동원하는 읽기로 확장됩니다. 이러한 읽기 방식의 변화는 성경 읽기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새한글성경』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젊은 세대의 읽기 특성과 디지털 친화성을 고려해 번역된 성경입니다. 이미 2021년 11월에는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이 먼저 출간되어 독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참여하여 귀중한 의견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반영해 2024년 12월에는 신·구약 전체가 담긴 『새한글성경』 완역본이 출간되었습니다.

『새한글성경』의 주요 번역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한글성경 번역 특징

1) 쉽고 간결한 문장

◇ 로마서 1장 1절

바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리시는 종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한 문장을 최대 16어절 50글자가 넘지 않도록 짧은 문장으로 번역하였습니다. 한 문장에 하나의 정보를 담아 전달하여 성경의 메시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크기가 작은 스마트폰이나 다른 디지털 매체로 성경을 읽을 때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2)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

◇ 시편 118장 28~29절 (기도)

28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말)
29 여러분은 여호와께 감사 찬양을 드리세요! 여호와는 좋으시니까요.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와 한결같은 사랑은.

원문의 문학 갈래(장르), 어순, 문장 구조까지도 번역문에 반영하였습니다. 원문의 문학적 특징뿐만 아니라, 원문이 어순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점들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원문의 어순을 고려하여 도치의 형식이 많이 나타납니다. 원문의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 청자와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은 문장의 종결어미를 다르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번역하였으며 ‘(기도)’, ‘(혼잣말)’, ‘(사람에게 하는 말)’ 등을 괄호로 표기하여 대화의 대상이나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독자가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현대 한국어 종결어미와 상황에 맞는 다양한 높임법의 사용

◇ 누가복음 8장 47~48절

47 그 여자는 자기가 들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떨며 나아왔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기가 무슨 까닭으로 예수님을 건드렸는지 모든 백성 앞에서 털어놓았다. 어떻게 해서 곧장 낫게 되었는지도 말했다. 48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파님!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평안히 가도록 하세요.”

옛 문체를 쓰지 않고, 현대 문장 종결어미인 ‘-이다/-하다/-합니다’ 체를 사용하여 현대 한국어 독자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겸손하신 성품을 반영하여, 부활하시기 전에는 무리에게 존댓말을 사용하시는 것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아픈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해요체’를 사용해서 낮은 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시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시는 성품이 잘 드러나도록 번역하였습니다.

4) 현대적 낱말과 표현 사용, 교회 전통 용어를 새롭게 번역

◇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낼 수 있었습니까? 고난(←환난)이나 옥졸(←곤고)이나 굶주림(←기근)이나 헐벗음(←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입니까?

◇ 새로운 번역어(교회 전통어)

넘은명절(유월절), 누룩없는빵(무교병), 다테우는제사(번제) 등

과거에는 널리 사용되었으나 현재 사용되지 않는 낱말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이해하기 쉬운 낱말과 표현을 찾아 번역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일상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제사 용어나 절기 용어 등은 이해하기 쉽게 의미를 살려 우리말로 번역하고, 원문 글자 그대로의 표현은 각주로, 전통 번역어는 괄호 안에 병기하였습니다.

5) 장애와 질병 관련 용어의 개선



장애인들과 특정 질환자들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장애인 관련 용어를 공식적으로 쓰는 말로 번역하고, 일부 질병 관련 용어들도 새롭게 번역하였습니다. ‘맹인’은 ‘시각장애인’으로, ‘다리 저는 사람’은 ‘지체장애인’으로, ‘말 못하는 사람’은 ‘언어장애인’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또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나병’을 새한글성경

에서 ‘심한피부병’으로 번역한 것은, 성서 시대의 이스라엘에는 오늘의 ‘한센병’에 해당하는 질환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들에 따른 것입니다.

6) 현대 단위와 아라비아 숫자의 도입

◇ 창세기 6장 15절

그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 150미터(←삼백 규빗), 너비 25미터(←오십 규빗), 높이 15미터(←삼십 규빗)로 하여라.

도량형(무게, 길이, 부피 등)과 화폐 단위, 시간과 요일을 다매체 시대의 한국어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익숙한 것으로 바꾸어 적었습니다. 그러나 데나리온 등 원문의 단위가 더 익숙하고 간명한 경우에는 원문의 단위대로 번역하고 각주에 현대 도량형으로 환산한 것을 적도록 하였습니다. 단위를 현대화하면서 표기할 때,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독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7) 교과서 용례에 맞춘 고유명사의 음역

◇ 고유명사의 음역

키루스(← 고레스), 다마스쿠스(← 다메섹), 시리아(← 아람), 이집트(← 애굽) 등

인지명 등 고유명사의 음역을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과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용례에 맞추어 번역하였습니다. 기

존 번역의 음역을 존중하되 성경과 일반 역사의 관련성을 분명히 하여, 성경의 역사성이 드러나도록 한 것입니다.

8) 문장 부호 사용과 예언서의 화자 괄호 표시

◇ 스가랴 1장 14~16절

14 그러자 나를 통해 말하는 천사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천사) “널리 알리세요. (예언자)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해 엄청난 열정을 쏟아붓는다. 15 느긋하게 지내는 민족들에 대해 내가 엄청나게 노여워한다. 나는 조금 노여워했는데, 그들은 재앙을 더 크게 만들었다.’ 16 (예언자)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나의 집을 그 가운데 짓도록 하겠다. — 전능하신 여호와와 말씀입니다. — 측량 끈을 예루살렘에 대고 팽팽히 당기도록 하겠다.’”

‘한글 맞춤법’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다양한 문장 부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을 때 예언서 부분에서 화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화자를 괄호 안에 표기하였습니다. 다중 인용의 복잡한 구조 또한 큰따옴표(“”), 작은따옴표(‘ ’), 홑낫표(『 』), 겹낫표(⌈ ⌋) 등을 활용하여 층위를 드러내어,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2. 새한글성경의 활용 방안

1) 아침 루틴에 ‘성경 읽기’ 포함하기

매일 아침 단 5분!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약 3년 안에 성경 전체를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 가깝게, 읽기는 쉽게 번역된 새한글성경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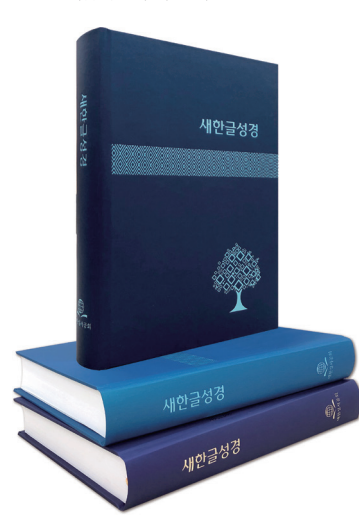
2) 주제별 묵상 정리 노트 만들기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서 새한글성경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사랑’, ‘용서’, ‘지혜’ 등 자신에게 필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찾아보고, 해당 구절을 성경전서 개역개정판과 비교하여 정리 노트를 만들어 보기를 추천합니다. 성경 본문이 전달하는 의미를 더 깊이 있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3) 시편이나 잠언으로 마음 정리

마음이 지치거나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시편이나 잠언을 추천합니다. 새한글성경은 화자의 감정이 잘 전달되어 깊은 공감과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본래 사람들 가까이에서, 일상의 언어로 전해졌습니다. 새한글성경은 그러한 탈권위적이고 친근한 말씀의 회복을 지향하며, 하나님을 멀게 느꼈던 이들이 영혼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도록 돕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어렵지 않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되었습니다.



앞으로 대한성서공회는 새한글성경 본문을 해설, 그림, 사진, 지도, 동영상 등과 함께 다양한 매체로 볼 수 있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새한글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워지고, 성경을 낯설게 느꼈던 이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첨용기연 설립 소식



첨용기연 설립 이야기 : 우리가 몰랐던, 그러나 이미 계획하신 일

개강하고 얼마 되지 않아 새로운 학기에 적응하느라 분주한 가운데, YWAM의 리더이자 같은 과 친구 였던 현서와 연락이 왔습니다. 현서는 작년 24학번 새내기 시절에 종강 채플 이후 식교제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공대, 사회대, 자연대 등은 기독교인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식교제를 했습니다. 첨단융합학부는 신설과이기도 했지만 200명이 넘는 인원에 비해 현서와 저, 단 두 사람만 왔기에 편의상 공대 기독교인 연합 지체들과 식교제를 나눴습니다. 저와 현서는 겨울 방학 동안 연락이 뜸했기에 오랜만에 서로의 안부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서는 저에게 첨단

융합학부 내에서 한 주에 한 번 정도 큐티 모임을 갖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의 나태함으로 인해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 힘들다는 신앙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큐티 모임을 갖자는 제안이 들어오니 승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첨단융합학부 기독교인 연합까지 이어질지는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큐티 모임을 갖자는 내용의 연락 후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현서와 함께 밥을 먹게 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첨단융합학부 기독교인 연합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인 연합이라는 이름을 걸고 학과 친구들이 나를 통하여 기독교를 바라보게 된다는 점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과 첨단융합학부 내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체들에 대한 마음이 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첨단융합학부 기독교인 연합 설립에 함께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수업을 듣고 카페에 모여 첨용 기독교인 연합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첨단융합학부 기독교인 연합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좋은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첨용기연'으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모임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첫 모임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해야 할 것은 지도 교수님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의치 않으면 간사님 성함을 올려도 되지만 저희 학과에 크리스천이시고 학생들을 사랑으로 대하시는 송준호 교수님이자 학부장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 1학년 때, 송준호 교수님과 밤약속을 했을 때, 제 이름을 보시고 먼저 크리스천인 것을 알아봐주셨고 먼저 대화를 걸어주셨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교수님의 학생들에 대한 사랑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믿지 않는 학생이었다면 송준호 교수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실까? 기독교가 무엇일까?' 궁금해할 정도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희는 송준호 교수님이 첨용 기연의 지도 교수님이 되어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교수님께 인스타로 연락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송준호 교수님께서 한번 얼굴 보고 대화해보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교수님과 만날 날짜를 잡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날이 되어 현서와 저는 첨단융합학부 건물 18동에서 같은 수업을 듣고 바로 5층 학부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떨리기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작년에 만났던 송준호 학부장님이 아니면 어떻게 하지? 평소에 얼굴을 더 자주 비출 걸 그랬나? 올라가서 어떻게 교수님을 설득시킬까?' 등등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이 고민들 중 하나도 유효한 것이 없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저희의 첨용기연을 응원해주셨고 지도교수님으로 성함을 올리는 것을 흔쾌히 허락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첨단융합학부에서 기독교인 연합을 세워나갈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에게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신다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왜 내가 첨단융합학부로 왔는지, 하필 종강 채플 이후 식교제에 현서와 저, 단 둘만이 있었는지, 왜 송준호 학부장님께서 열심으로 이 첨단융합학부를 설립하셨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중 일부였으며 하나님께서 첨단융합학부의 학생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공평한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신다는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제가 본 하나님의 계획은 빙각의 일각 만큼인데 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것을 보아도 은혜, 보지 못해도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제가 해야 하는 것은 첨단융합학부의 학생들과 교수님들, 첨용기연을 위해 기도하는 것임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첨용기연에는 3명뿐이지만 나중에 인원이 모이면 함께 큐티 모임을 하자는 송준호 교수님과 약속을 끝으로 학부장님과 만남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4월 7일 서울대학교 기독교인 연합 대의원회에서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첨용기연의 준회원 등록에 찬성표를 던지며 첨용기연이 정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첨용기연 설립에 참여하게 되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고 제가 헌신해야 하는 일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사람이 한 일은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첨단융합학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주셨고 모든 과정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첨용기연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귀한 사역을 더욱 풍성하게 세워나갈 것입니다. 첨단융합학부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도 함께 해주시고, 저희 또한 기도하고 헌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고 놀라운 신 일들을 기대하며 저희 첨용기연의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김요엘(첨단융합24)

서울대학교교회 소식



저는 왕량탕입니다. 결코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두 차례 수능을 치렀지만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고 결국 전문대학에 입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범하고 심지어 실패처럼 보일 수 있는 출발점에서도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제 삶을 이끄셨고, 마침내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어릴 적 시골 지역의 가정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당시 그 지역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탄압이 있었기에 교회는 자주 단속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체계적인 신앙 교육을 받지 못했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부족했으며, 주님에 대한 이해 역시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께서 저를 아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제 신앙 여정의 가장 근본적인 확신이자 출발점입니다.

서울대학교교회(SNUC)에서 생활한 지난 2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저에게 깊은 감동과 위로가 되었던 두 가지 경험, 그리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1.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인'들

SNU에 입학하자마자 수영로교회 유 목사님의 추천으로 SNUC에 등록하게 되었고, 그분의 소개로 방 목사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방 목사님은 중국 출신의 목회자이시며, 제가 서울대에 처음 왔을 때 저의 주요한 영적 멘토이자 큰 위로가 되어주셨습니다. 이후 교회 내 사역 재배치로 대학원

부 예배를 담당하게 되셨지만 여전히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학기부터는 또 다른 귀인이신 류제경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저의 신앙적인 고민을 함께 나누어 주셨고 여러 차례 밤늦게까지 함께 기도하며 눈물을 흘려 주셨습니다. 교수님의 나라와 민족,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사랑은 제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박동열 교수님께서는 제가 학업을 포기할 위기에 처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셨고, 남윤신 교수님은 연구 방향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장정주 교수님과 신회영 사모님은 교회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섬겨주신 분들이며, 영어예배와 newcomer 그룹에서 부모님처럼 저를 따뜻하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신앙과 삶의 여러 고비마다 가까이에서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존재는 제가 SNUC 공동체 안에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였습니다.

이 교수님들께서는 바쁘신 중에도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셨고 학문과 신앙 모두에서 제게 분이 되어주셨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삶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저 역시 주님의 뜻 가운데 교수로 쓰임받게 된다면 이분들을 본받아 학문과 신앙 모두에서 주님께 충성된 종이 되고 싶습니다.

2. 학업과 장학금에서 나타난 주님의 신실하신 공급

SNU에서의 학업은 저에게 늘 큰 도전이었습니다. 영어 실력의 부족과 교육 배경의 한계 등으로 인해 학문적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 저는 주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수차례 경험하였습니다.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서울대의 수준을 따라가며 박사과정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덕분이었습니다.

학비 문제 역시 제게 큰 시험이었습니다. 생활비와 연구비의 부족으로 인해 여러 차례 좌절하였고,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고 의심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순종을

택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듯 "주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고, 수많은 도움의 손길을 통해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3. 서울대 중국인 공동체의 재건을 위한 기도

서울대에 처음 입학했을 때, 목사님께서는 중국 유학생 수의 감소로 인해 교회 내 중국어 예배가 폐지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게 충격이었고, 동시에 깊은 안타까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항상 중국어 예배에서 섬겨왔기에 한국 최고의 대학에 중국인을 위한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사과정 1학년 동안은 학업과 생활의 압박으로 인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어쩌면 지금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타이밍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기도를 시작하였고, 마침내 지난주 첫 번째 중국인 소그룹 모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성경 지식이 부족하고 조직과 진행은 말할 수 있어도 영적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역은 단지 열심이나 인간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위임이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주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일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시고, 서울대에서 공부하는 중국 영혼들이 주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신 대학총교회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교회 위에 늘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왕량탕(체육교육 박사과정)

개강예배 후기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입학 전, 그 두 달의 기간 동안에 나에게 신앙적인 고민이 있었다. 내가 신앙 고백을 정말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게 맞을까? 그저 교회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사람 때문에 머무는 게 아닐까? 오히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오랜 기간 찬양팀으로 섬기며 관계를 쌓아왔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항상 일요일이면 교회에 간다는 하나의 ‘루틴’ 혹은 재미있고 편안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의한 것이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든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진심으로 주를 고백하기를 바라는 신앙적 열망이 1-2월에 쭉 지속되었던 것 같다. 그러던 중, 같은 교회에

개강예배로 세워진 하나님의 지표

다니는 24학번 CCC 순장님을 통해 서울대 CCC에 대해 알게 되었고, 조금 이른 시점이었지만 2월 초에 CCC와 연락이 닿아 신앙 OT와 개강 예배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렇게 참여하게 된 신앙 OT에서 믿음이 너무나도 좋은 분들을 만나고 함께 놀며 나의 믿음을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이어진 개강예배에서, 나는 앞으로 대학에서의 신앙생활을, 화려한 것으로 외식하는 무화과 나무의 삶이 아니라 그 속의 열매까지 꼭 차게 열린 무화과 나무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 그래서 요즘은 이 결단에 따라 내 대학 생활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모시기를, 그리고 그 고백을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큐티로 아침을 시작했을 때 큐티에서 읽은 말씀, 결단한 사항들을 기억하며 하루를 사는 것처럼, 그리고 큐티를 한 날과 하지 않은 날들의 차이를 느끼는 것처럼, 대학 생활을,

또 무엇보다 입학 후 첫 학기를 예배로 시작하는 건 앞으로의 한 학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학교 생활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좌우하는 것 같다. 개강예배로 학기를 열면서 나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지표가 세워졌고, 넘어지더라도 그 지표를 붙잡고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 요즘은 그 감사의 마음으로 사는 것 같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에게 믿음의 성장이 있도록 허락해주시고, 이곳 서울대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곁에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학교,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성장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기를, 그리하여 서울대 캠퍼스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그 끝에 이 캠퍼스의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한다.

김효은(불어교육25)

서울대 기독교인 연합 OB 모임 후기



OB 모임 전 시간이 남아 캠퍼스를 둘러보았다. 학교는 많이 세련되어졌지만, 예전 사범기연 방은 다른 동아리들과 함께 쓰게 되었다고 했다. 한때 외로운 시간을 보내며 단대 모임과 과 모임을 없애 버리고 싶다고 기도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마음껏 기도할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었음을 미처 알지 못했다.

OB 모임에서는 캠퍼스의 상황을 듣고 함께 기도했다. 학생들의 고민이 내가 학생일 때 했던 고민들과 생각보다 비슷해 놀라웠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고 새로운 인연들과 교제

하는 것도 유익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동역자들을 만난다는 것은 늘 힘이 되는 일이다.

OB 모임을 통해 알게 된 분과 따로 점심을 먹었는데, 모임 이야기를 나눌 줄 알았던 자리가 오히려 개인적인 교제로 이어졌다. 이런 교제가 OB 모임의 원래 목적 중 하나였다는 걸 떠올리며, 앞으로 더 활발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다.

모임 이후에는 재학생들과 교수님들, 간사님들과 함께하는 개강예배가 있었다. 강의실을 가득 채운 사람들과 뜨거운 예배의 분위기에 놀랐다. 매년 캠퍼스가 어렵다고 하지만, 예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신기하고 감사했다.

졸업한 지 10년이 넘으니 서울대가 점점 멀게 느껴졌다. 전공에서 배운 걸 쓰지도 않았고 학교와 사회는 많이 달랐다. 내 인생의 황금기인 20대초를 열매도 없해보이는 연합운동을 위해 낭비했다는 억울한 마음이 있었고, 졸업할 때

는 드디어 기독교인 모임들에서도 벗어난다는 해방감마저 들었었다. 사실 30대가 된 지금도 그 고민은 남아있다. 내 삶은 불안정하고, 남들은 앞만 보며 잘만 달려가는데, 이제는 추억으로만 남은 서울대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 맞나 싶기도 하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계속 OB모임에 대한 마음을 주신다. 내가 그 작은 사범기연 방에서 낭비하며 보냈던 20대초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셨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내가? 라고 그만 물어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두고자 한다. 솔직히 OB모임의 앞으로의 방향은커녕 존속 가능 여부조차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간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있을 수 있도록 내 역할을 감당하며 기도하고자 한다.

모영화(영어교육과 졸업)

개강예배의 울림



새학기의 시작과 함께 개강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 전에는 2024년 기대모 대표님의 주도로 BBQ 공학관 점에서 기대모 저녁식사가 진행되어, 오랜만에 만난 지체들, 처음 만난 지체들과 서로를 알아가며 따뜻한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개강예배에서는 목사님의 간증이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섯 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한 직후, 그 아이가 갑작스러

운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은 사건을 들으며 복음 전도의 시급함과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 또한 ‘더 늦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고, 기대모 차원에서도 복음 전도에 힘쓰자는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이 감동이 이어져 1학기 말 기대모 주관 전도 초청 잔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 이어진 기도 시간도 뜨거웠습니다. 캠퍼스의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며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고, 복음 전파에 대한 책임과 열정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교수님들과 간사님들께서 함께 불러주신 특송은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헌신의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고, 캠퍼스 리더로서 저 또한 감동을 주는 섬김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기대모 지체들뿐 아니라 새로 입학한 친구들, 처음 모임에 참여한 지체들과도 교제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더욱 감사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며 신앙 안에서 연결되는 이 시간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후에도 이런 교제의 자리가 자주 마련되기를 바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예배를 통해 ‘복음 전도’라는 사명이 제 삶과 공동체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 함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캠퍼스에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함께 기도하며 동역해 나가고 싶습니다. 다음 예배도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캠퍼스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시길 기도합니다.

민소연(국어교육 박사과정)

회개는 바뀐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천문 학부 물리학전공 24학번 임은현입니다. 그간 진나빛을 읽으며 아는 분들이 쓴 글을 찾아보기도 하고 담긴 글들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막상 제 글을 쓰려니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글을 잘 써야겠다는 욕심은 조금 내려놓고, 주님이 이 글에서 저를 통해 전하려고 하시는 것들을 적어보겠습니다. 이번 개강예배는 새내기 신앙오티 예배와 함께 드리지게 되었고, 저는 IVF 24학번 동기의 제안을 통해 감사하게도 예배팀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학동안 예배팀 연습

에 참석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며 회중으로 예배에 참석할 때와는 또 다르게 더 열심을 가진 채로 예배를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 당일, 주님은 김미정 목사님을 통해 저의 삶에 큰 도전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회개는 입으로 잘못했다고 말하며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완전히 바뀐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로 먼저 드러나는 것입니다.” 불꺼진 수련회장에서 무릎 꿇고 우는 것은 정말 잘할 자신이 있었던 저였고, 이런 시간들이 저에게 은혜와 삶의 회개, 변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변화하는 것이 먼저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더 강하게 다가왔고, 진정 주님의 자녀와 제자로 살아가려면 나의 삶에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겠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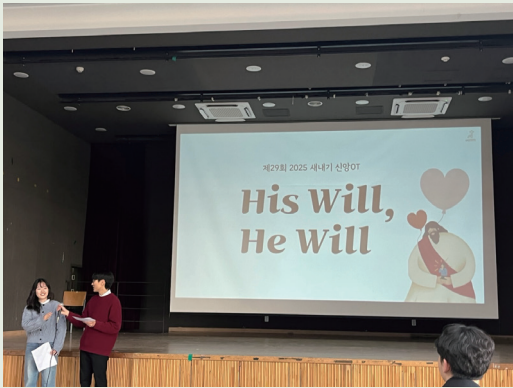
이를 통해 이번 학기 저의 삶이 학업과 활동들을 저의 힘으로만 이겨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이를 통해 구별된 그리스도다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개강예배는 개강예배만의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강예배를 통해 캠퍼스에서 같은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갈 믿음의 선배들과 동역자들이 곁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더욱 많은 이들이 서기엔 예배를 통해 서로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삶을 살아갈 지혜와 힘을 얻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임은현(물리천문학부 24)

개강예배/신앙오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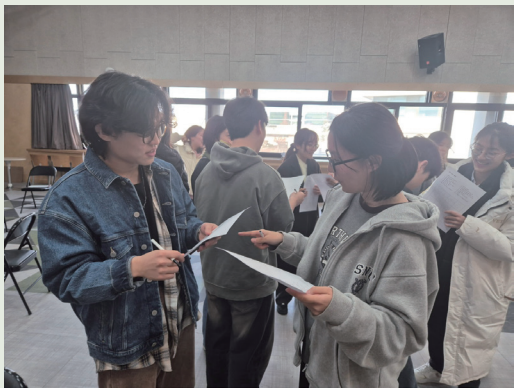
25-1 개강예배 기도하는 모습



25-1 신앙오티(1)



25-1 신앙오티(2)



25-1 신앙오티(3)



간사&기독교수 특송



예배 후 식교제



축복시간



김미정 목사님 설교

대학춘선교회 토크콘서트



미중 패권 경쟁과 우리 외교

일시: 2025.07.05.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선교센터 그늘
주최: 대학춘선교회
강사: 강영훈 장로(대학춘교회, 제주평화연구원장)
전직 외교관
주호놀룰루 총영사,
주타이베이 대한민국대표부 대표 역임

